

2019년 10월 1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실적 시즌 앞두고 종목 장세 전개 존슨 영국 총리 “10월 31일 브렉시트 단행할 것”

이제는 실적 시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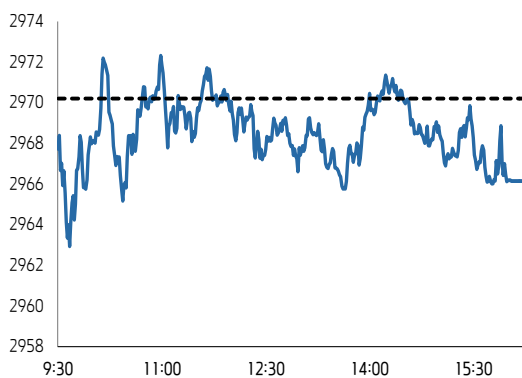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스몰딜 무역협상 타결 이후 물량 소화 과정을 보이며 하락 마감. 특히 추가 협상에서는 첨예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 그런 가운데 영국 노딜 브렉시트 이슈 부각 및 미국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도 영향. 다만, 스몰딜 합의가 미-중 간 무역협상 돌파구를 마련 했다는 점을 감안 기대 심리는 여전히 제한적인 등락에 그침(다우 -0.11%, 나스닥 -0.10%, S&P500 -0.14%, 러셀 2000 -0.43%)

지난 11일 미국이 관세율 상향 조정을 연기하고 중국은 농산물 수입을 언급하는 등 스몰딜 협상 결과를 발표.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은 논의할 점이 남아 있어 부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어왔던 불확실성이 완화 되었다는 점은 위험자산에 긍정적. 물론 핵심 쟁점 타결까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음.

한편, 11월 APEC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12월 15일 부과되는 관세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 미국 정부는 여전히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 그러나 이번 협의를 통한 돌파구 마련으로 11월에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음. 한편, 지난 5월에는 중국 정부가 협상이 성사되면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당시와 다름.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협상은 최소 APEC 회담 까지는 영향력이 축소 전망.

이런 가운데 시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1,2분기에 이어 3분기 S&P50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 둔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낙관적이지 않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점은 과거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75%에 달했다는 점에 기대하고 있음. 이를 감안 미 증시는 당분간 개별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등락이 예상되는 종목 장세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067.40	+1.11	홍콩恒生		26,521.85	+0.81
KOSDAQ		641.46	+1.34	영국		7,213.45	-0.46
DOW		26,787.36	-0.11	독일		12,486.56	-0.20
NASDAQ		8,048.65	-0.10	프랑스		5,643.08	-0.40
S&P 500		2,966.15	-0.14	스페인		9,246.50	-0.29
상하이종합		3,007.88	+1.15	그리스		855.89	-0.01
일본		21,798.87	휴장	이탈리아		22,097.94	-0.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실적 기대속에 상승

애플(-0.14%)은 무역협상 완화에 힘입어 상승 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1분기에 아이폰 SE2를 출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하락 전환했다. 스카이웍(-0.49%), 퀴보(-0.03%), 브로드컴(+0.27%) 등 부품주는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내일 실적 발표하는 JP모건(+0.27%), 웰스파고(+0.12%), 골드만삭스(+0.56%) 등 금융주는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 상승 했다. 비온드미트(-3.87%)은 웰스파고가 경쟁 심화를 이유로 목표주가를 시장가보다 낮은 125달러로 커버리지를 시작하자 4% 가까이 하락 했다.

테슬라(+3.66%)는 9월 중국 신에너지 차량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34.2% 급감하는 등 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 했으나 상승 했다. 이는 월요일 오후 기가팩토리 3의 1단계 공장 전설이 마무리 되었다는 보도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10월 30일 상해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1월 춘절 이후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도 긍정적이었다. 나이키(+1.07%)는 BOA가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32%	대형 가치주 ETF(IVE)	-0.08%
에너지섹터 ETF(OIH)	-0.87%	중형 가치주 ETF(IWS)	-0.26%
소매업체 ETF(XRT)	-1.01%	소형 가치주 ETF(IWN)	-0.39%
금융섹터 ETF(XLF)	+0.14%	대형 성장주 ETF(VUG)	-0.02%
기술섹터 ETF(XLK)	-0.06%	중형 성장주 ETF(IWP)	-0.0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5%	소형 성장주 ETF(IWO)	-0.38%
인터넷업체 ETF(FDN)	-0.18%	배당주 ETF(DVY)	-0.38%
리츠업체 ETF(XLRE)	+0.1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5%
주택건설업체 ETF(XHB)	+0.0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8%
바이오섹터 ETF(IBB)	+0.38%	미국 국채 ETF(IEF)	+0.28%
헬스케어 ETF(XLV)	-0.04%	하이일드 ETF(JNK)	+0.11%
곡물 ETF(DBA)	-0.06%	물가연동채 ETF(TIP)	+0.16%
반도체 ETF(SMH)	+0.15%	Long/short ETF(BTAL)	+0.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7.54	-0.12%	+1.83%	-7.57%
소재	356.78	-0.75%	+1.41%	-1.79%
산업재	646.23	-0.24%	+1.85%	-2.85%
경기소비재	945.88	-0.06%	+1.37%	-1.10%
필수소비재	621.80	-0.43%	-0.50%	+0.82%
헬스케어	1,040.14	-0.03%	+0.11%	-1.25%
금융	459.86	+0.12%	+1.37%	-2.03%
IT	1,430.66	-0.10%	+1.64%	+0.94%
커뮤니케이션	167.92	-0.20%	+0.52%	-1.80%
유틸리티	322.23	-0.67%	-1.64%	+1.53%
부동산	242.99	+0.14%	-0.14%	+1.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매물 출회로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3% MSCI 신흥 지수 ETF 는 0.0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304 계약 순매도 한 가운데 0.85pt 하락한 273.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4.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무역협상 일부 타결 이후 물량 소화 과정을 보이며 소폭 하락했다. 특히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일부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특징이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이란 유조선을 둘러싼 우려 완화 및 OPEC 추가 감산 전망이 약화되며 2% 하락했고, 중국 철광석 야간선물이 3% 넘게 하락하는 등 상품시장의 부진한 점은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다.

한편, 파운드화가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지속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또한 부담이다. 이날 엘리자베스 2 세 영국 여왕 연설에서 브렉시트와 관련 언급은 자제했다. 그러나 존슨 영국 총리가 성명서를 통해 “10 월 31 일 브렉시트를 단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언급하는 등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 여파로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0.8% 약세를 보이며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다. 이로 인해 원화 약세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수급에는 부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매물 출회로 조정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중국 수출입 통계 예상 하회

9 월 중국 수출은 달러화 기준 전년대비 3.2% 감소(예상 -2.6%) 했고, 수입도 전년대비 8.5% 감소(예상 -6.0%)해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 무역수지는 수입 감소로 396.5 억 달러로 예상(340.5 억 달러)을 상회했다.

8 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전월(mom -0.4%)은 물론 예상(mom +0.3%)를 상회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로는 2.8% 감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OPEC 추가감산 기대 약화되며 하락

국제유가는 이란이 유조선 피격에 대해 사우디 책임론을 철회하자 하락 했다. 더불어 쿠웨이트 석유장관이 원유 재고 증가 가능성을 낮추며 추가 감산 합의 가능성이 약화된 점도 부정적이었다. 러시아 에너지 장관 또한 OPEC 플러스 합의에 대한 변화를 주려는 논의가 없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던 OPEC의 추가 감산 가능성이 낮췄다. 이런 가운데 달러화 강세도 매물 출회 요인 이었다.

달러화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달러 대비 0.8%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엔화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노딜 브렉시트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미 채권시장 휴장인 가운데 국채 선물은 시간 외로 소폭 상승했다. 미-중 무역협상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

금은 노딜 브렉시트 부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 했다. 0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22% 철근도 2.1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59	-2.03	+1.59	Dollar Index	98.521	+0.22	-0.45
브렌트유	59.35	-1.92	+1.71	EUR/USD	1.1025	-0.15	+0.49
금	1,497.60	+0.60	-0.45	USD/JPY	108.4	+0.10	+1.06
은	17.710	+0.95	+0.97	GBP/USD	1.2567	-0.80	+2.23
알루미늄	1,720.00	-0.12	-1.49	USD/CHF	0.9978	+0.04	+0.30
전기동	5,818.00	+0.38	+1.68	AUD/USD	0.6775	-0.28	+0.62
아연	2,420.00	+0.04	+5.72	USD/CAD	1.3239	+0.27	-0.53
옥수수	397.75	0.00	+2.78	USD/BRL	4.1284	+0.46	+0.51
밀	511.00	+0.59	+4.45	USD/CNH	7.0705	-0.15	-0.90
대두	940.50	+0.48	+2.76	USD/KRW	1184.90	-0.33	-0.99
커피	94.85	+1.23	-2.22	USD/KRW NDF1M	1184.65	+0.15	-1.0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729	휴장	+17.10	스페인	0.209	-2.40	+7.50
한국	1.484	-0.10	+11.20	포르투갈	0.172	-2.70	+4.00
일본	-0.179	휴장	+4.30	그리스	1.421	-0.90	+1.30
독일	-0.457	-1.50	+11.80	이탈리아	0.911	-2.80	+6.10